

예이츠의 작품과 일연의 『삼국유사』에서의 춤의 향연*

유 욱 례

우리말 요약: 예이츠와 일연의 춤 이미지는 유사한 점이 있다. 이 글은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의 시에 재현된 춤과 일연의 『삼국유사』에 서술된 춤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예이츠는 시에, 일연은 설화에 춤을 노래했다. 이는 춤으로 민족의 고결한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다. 그 작품들에서 춤의 이미지는 가면을 착용하여 성스러운 고요함의 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근심을 물리치려는 염원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육체와 정신이 하나 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예이츠와 일연 두 작가는 시와 설화를 춤의 제재로 사용하여 ‘존재의 통합’이나, ‘삶의 통합’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는 성스러운 이미지를 재현하였다.

주제어: 춤 이미지, 가면, 열망, 신비의 노래, 예술적 춤.

저자: 유욱례는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부교수이다.

Title: Feast of Dance in Yeats's Work and Iryeon's *Samkukyusa*

Abstrac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dance images in Yeats's and Iryeon's work. Yeats and Iryeon recorded them in their folktales, just as they were. This was the outcome of their efforts to revive identity through national dances. The dance images appearing in their works communicate the aspiration that people's hopes would be fulfilled. They also wish that their concerns would be removed by wearing masks and performing holy and peaceful dances. Both writers selected and recorded such dances for national and individual welfare. Using folktales, legends, and dances as materials, they mad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people's expressing their aspiration for living in happiness and prosperity; in their works appear holy images of Irish and Korean dances, such as 'mystic songs' and 'artistic dances.'

Key words: dance image, mask, aspiration, mystical song, artistic dance.

Author: Yukrye Yu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61452, Korea.

E-mail: yyk5211@hanmail.net

www.kci.go.kr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고대사회에서 춤은 제의적 기능을 갖고 인간이 신을 접신하거나, 자연을 숭배하여 찬미하거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춤을 추었다. 대부분의 춤 행위에는 가면을 착용한다. 이렇게 가면을 쓴 무용수의 춤은 육체를 초월하여 신과의 만남이 이뤄지고, 시간을 벗어나 현재, 과거,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상징성을 갖는다. 고대에 가면은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다. 제사장 혹은 무당은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신과 교접을 하였다. 이 춤사위는 제사장 계급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로 전파되어 다양한 민족의 전통을 이뤘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각 나라는 춤을 민족의 전통으로 유지하고 있다.

동양에서, 특히 인도에서 춤은 상극과 상보이며, 중국에서 춤은 음과 양의 조화로 간주한다. 음양의 조화는 두 남녀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에 종종 비유된다. 우리나라의 춤은 인도와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다. 불교와 유교를 숭배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적인 특유의 춤사위를 갖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춤은 처용무, 승무, 바라춤이며, 천일합일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서양 춤은 발레와 같은 춤으로 춤사위는 뛰는 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의 춤을 자신의 내면을 표출한 예술적 모방으로 내면적, 심리적, 아름다운 몸짓을 포함한 모방행위로 보고 있다.

춤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의 융합, 즉 의식이 육체를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신격(神格)을 입은 사람들은 신과 교접하기 위해 춤을 춘다.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행복과 슬픔을 춤 행위로 동작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춤을 통해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분출하고, 재창조하기도 한다. 예이츠(W. B. Yeats (1865-1939))와 일연(一然 (1206-1289))의 작품에 제시된 춤은 연금술사들의 춤과 유사한 신비의 춤이며, 예술적 향연이었다.

예이츠와 일연의 춤은 가면을 착용하여 영혼과 육체의 합일뿐만 아니라 애환과 고통에서 벗어난 저 너머 세계에 대한 향연으로 시작된다. 예이츠는 초기시, 중기시, 후기시에 영웅적이고, 민족적이며, 전통적인 고결한 춤을 재현한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유사하게 민족적이고 귀족적인 춤의 향연을 펼친다. 예이츠는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시인으로 현대의 최고의 시인이며, 일연은 한국의

보물인 『삼국유사』을 저술한 학승이다. 이들의 춤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춤사위를 펼쳐 보이면서 온 세상을 춤의 향연으로 물들게 한다. 이 두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춤은 유사점이 많다. 예이츠는 한때 불교사상에 매료되기도 했다. 일연의 사상도 불교사상이다. 이 두 작가의 작품에서 춤 이미지는 초월적이며, 더불어 삶의 애환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춤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서 춤의 원형을 복원하려고 노력하였다.

춤에 관련된 국내의 논문이 있다. 대표적으로 예이츠의 춤에 대한 그동안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준석은 「예이츠의 춤 이미지에 제시된 ‘존재의 통합」에서 “무용수가 긴장과 갈등의 단계를 거쳐서 육체와 정신이 융합되는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 양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존재의 통합”(227)으로 주장했다. 허현숙은 「예이츠 시 작품에서의 춤과 여성」에서 “예이츠는 춤을 통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상태를 구체화하고 이는 춤추는 사람 즉 여성”(135)을 통해 구체화 된다고 주장한다. 윤정업은 「三國遺事 ‘處容郎 望海寺’條에 나타나는 춤의 意味 研究」에서 춤을 “기표로 파악하여 춤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해석, 즉 춤에 대한 관찰자의 의미부여”(218)를 연구하였다. 이처럼 예이츠의 춤과 일연의 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이 글은 예이츠의 시 5편, 즉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Among School Children”), 「행복한 나라」(“The Happy Townland”), 「마이클 로바티츠의 이중 비전」(“The Double Visions of Michael Robartes”), 「둥근 탑 아래」(“Under the Round Tower”), 그리고 「춤추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Those Dancing Days are Gone)를 분석할 것이다. 일연의 춤에 대한 연구는 「처용랑 망해사」에 재현된 춤을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이 글은 예이츠와 일연의 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예이츠와 일연은 춤을 설화와 시로 창작한다. 예이츠는 아일랜드의 민요와 전통, 비교집단에서 배운 사상을 이미지로 제시하기 위하여 춤을 이용한다. 일

연은 한국의 설화를 수집하여 작품에 춤의 이미지로 재창조한다. 그들은 이 춤의 이미지로 사람들의 애환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통일, 더욱이 신과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이에 예이츠의 춤과 일연의 『삼국유사』의 춤을 분석한 후에, 두 춤의 의미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예이츠의 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예이츠의 춤

예이츠는 시적 상상력을 독창적으로 사용하여 그의 시에 춤을 노래한다. 그는 춤을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로 사용한다. 그는 초기 시, 중기 시, 후기 시에 이르기까지 춤 이미지를 시에 묘사했다. 그의 조부와 증조부는 목사였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아일랜드의 민간신앙에서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것을 예술로 그려냈다. 그는 아일랜드의 전통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신들의 세계에까지 다가가려고 했다.

예이츠는 동양사상을 접하고 나서 ‘존재의 통합’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춤을 제시한다. ‘존재의 통합’은 동양에서 음양의 조화와 유사하다. 조동렬·정옥희는 “예이츠가 인도의 전통에 적극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인도의 특성과 예이츠의 사고 체계의 유사성 때문”(8)이라고 주장한다. 예이츠는 인도의 초월적 세계를 추구하고 육체적 가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인도의 춤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예이츠는 『동양의 성서』(*Oriental Bible*), 『우파니샤드』(*Upanishad*)와 같은 인도 사상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예이츠의 「장미 연금술」에는 가면²⁾ 이미지가 잘 제시되어 있다. 이 가면은 주관과 객관, 현실과 이상, 자아와 반자아의 경계선을 이미지화한다. 시인은 가면을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후 당신의 마음을 떼게 하는 것은 가면이고 그 뒤에 있는 속마음이 아니지요”(Myth 184)라고 설명한다. 그의 가면은 세속의 장소에서 신성한 장소로 들어갈 때에 필요한 매개물이다.

나는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내가 손잡이를 잡는 그 순간에 향

내 향기가 나를 다시 꿈속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었다. 나는 꿈속에서 가면
을 착용한 것처럼 보였으며, 작은 동양풍 상점의 계산대 위에 누워있는 것
처럼 보였다.

I put my hand to the handle, but the moment I did so the fumes of the
incense made me fall again into the dream, in which I seemed to be
a mask, lying on the counter of a little Eastern shop. (*Myth* 286-87)

에이츠의 가면 이론은 헝강왕 때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신들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에이츠의 가면은 영웅적인 것,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것, 귀족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다(이창배 291-92). 김주성은 에이츠의 시뿐만 아니라 연극들도 “아일랜드의 신화적 전통과 기독교적 예수,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을 모티프로 하여 다양한 인물군의 원형적 표현을 상징하는 가면”(299)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면은 초자연의 세계로 접어들어 가서 신들에게 현실 세계의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의 촉매제이다. 성자는 신의 완전함을, 영웅은 도덕적, 윤리적 명분을, 예술가나 학자는 아름다운 것과 참된 것을 추구한다. 헝강왕의 가면은 왕 앞에서 춤을 추는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면은 영웅이나 신들의 가면을 쓰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에이츠는 우리의 삶이 자아와 반자아가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비극적 삶으로 제시하는데, 가면은 우리가 절망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향하고자 하는 희망의 다리 역할을 한다.

에이츠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춤을 묘사한다. 이 춤은 육체적 삶이 완성된 세계를 의미한다.

노동이 꽃피고 춤추는 그곳에서는
육체가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 상처 입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자체의 절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컴컴한 눈의 지혜는 밤샘공부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 밤나무여, 거대한 뿌리에서 꽃피는 그대여,
그대는 잎이요, 꽃이요 아니면 즐기요?
(『에이츠 시 전집』 418)

Labour is blossoming or dancing where
 The body is not bruised to pleasure soul,
 Nor beauty born out of its own despair,
 Nor blear-eyed wisdom out of midnight oil.
 O chestnut-tree, great-rooted blossomer,
 Are you the leaf, the blossom or the bole? (CP 185)

이 시는 예이츠가 상원의원이었던 시기에 한 초등학교를 시찰하고 쓴 시이다. 그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시절에 만났던 모드곤을 상상했다. 이 시에서 화자는 “노동이 꽃피고 춤추는 그곳에서”라는 이상세계를 생각한다. 이 세계는 육체가 영혼에 고통을 주지 못하고, 영혼도 육체에 고통을 주지 않은 곳이다. 이곳은 육체가 “춤추는” 과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이 세계는 “절망”이나 “공부”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밤나무”처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며, “지혜”이다. 이 세계는 이상적인 세계일뿐만 아니라 “잎”, “꽃”, “줄” 등이 존재하는 현실세계일 수 있다. 화자는 이 시를 통해서 존재의 통합의 세계가 우리가 염원하는 이상세계처럼 멀리 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현실세계일 가능성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통합은 찰나에 이루어지며, 내세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 통합이 성취될 수 있음을 춤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이츠는 초기시기에 창작한 「행복한 나라」에서 젊은 시절에 추구한 이상향의 세계를 노래한다. 이 세계는 천국이나 열반의 상태와 같은 세계이다.

강들에 붉은 맥주 갈색 맥주
 넘쳐흐르는 곳.
 금빛 은빛 숲에서 한 노인이
 백파이프를 켜고
 얼음처럼 푸른 눈의 여왕들이
 무리에 섞여 춤을 추는 곳. (『예이츠 시 전집』 166)

Rivers are running over
 With red beer and brown beer.
 An old man plays the bagpipes

In a golden and silver wood;
Queens, their eyes blue like the ice,
Are dancing in a crowd. (CP 68)

화자는 두니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되고, 사시사철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으며, 아름다운 꽃이 사방에 피어있는 지상낙원이다. 단테(Dante Alighieri)가 『신곡』(*La Divina Commedia*)의 “연옥편”에 묘사한 지상낙원처럼, 이곳은 “금빛 은빛” 숲이 있고, 노인이 연주하고 여왕이 군중과 어울려 춤을 추는 곳이다. 이 시에 묘사된 춤은 후기시에 나오는 춤과 다른 의미를 가진 춤이다. 초기시기에 춤은 후기시에서 존재의 통합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아닌 단지 이상세계에서 흥에 취해서 추는 춤이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현실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에덴동산과 같은 이상세계에서 살고 싶은 열망을 이 시에 노래하고 있다.

에이츠는 「마이클 로버티즈의 이중 비전」에서 한 소녀가 스피르크스와 부처 사이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 소녀의 춤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완성되는 과정을 제시하는 이미지이다.

폐허가 된 잿빛 성소 카셀 바위에서 나는 문득 보았다.
여자의 가슴을 하고 사자의 다리를 가진 스피르크스와
한 손은 부드럽게 하고, 또 한손은 치켜든
자비를 드리운 붓다의 모습을
그리고 이들 한가운데서 놀고 있는 소녀를
그녀는 인생 내내 마음껏 춤추어서
지금은 죽고 있으면서도
마치 무희를 꿈꾸는 듯이 보였다. (『에이츠 시 전집』 328)

On the grey rock of Cashel I suddenly saw
A Sphinx with woman breast and lion paw,
A buddha, hand at rest,
Hane lifted up that blest;
And right between these two a girl at play
That, it may be, had danced her life away,
For now being dead it seemed

That she of dancing dreamed. (CP 144)

화자는 “폐허가 된 잿빛 성소 카셀”을 방문하여 그 성소에 있는 바위 위에서 갑자기 환상상태로 접어든다. 그 환상상태에서 화자는 한 소녀가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 소녀는 “인생 내내 마음껏 춤”을 추었으며, “죽고 있으면서도” 춤을 추고 있다. 이 소녀의 춤은 존재의 통합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이미지이다. 예이츠는 한 소녀가 지혜를 상징하는 스펡크스와 자비 혹은 사랑을 상징하는 붓다 사이에서 춤을 추면서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통합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임종이 닥쳐서도 그녀의 춤이 최고조에 이르러 육체의 완성에 다다른다고 노래한다. 이 소녀의 삶은 화자인 마이클 로버티즈의 삶과 죽음이며, 더불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반영하는 것을 비유한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춤은 육체와 정신, 주관과 객관, 자아와 반자아가 완전하게 통합되어가는 과정 뿐만 아니라 죽으면서 완전한 완성단계에 도달함을 상징화한다. 이는 불교에서 살아 있으면서 열반의 상태에 있는 것과 죽은 후에 열반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비슷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예이츠는 「둥근 탑 아래」에서도 존재의 통합을 추구하는 춤을 제시한다.

금빛 왕과 은빛 왕비가 그 꿈에서
 환성을 높이다 또 빙빙 돌며 환성을 질렀지
 마침내 발가락으로 달콤한 박자를 타고
 입으로는 달콤한 곡조를 읊게 되었지
 빙빙 춤추며 날뛰며 추고
 드디어 꼭대기에서 추었다네. (『예이츠 시 전집』 260)

Of golden king and silver lady,
 Bellowing up and bellowing round,
 Till toes mastered a sweet measure,
 Mouth mastered a sweet sound,
 Prancing round and prancing up
 Until they pranced upon the top. (CP 112-3)

이 시에서 화자는 왕과 왕비가 꿈속으로 접어들어 존재의 통합을 완성하는 춤을 춘다. 예이츠는 금과 은, 왕과 왕비를 정신과 육체, 내면과 외면, 자아와 반자아의 이미지에 비유한다. 그는 이 이원적인 것이 통합되는 과정을 춤에 비유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에서 왕과 왕비의 통합은 양을 상징하는 남성과 음을 상징하는 여성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으로 제시한다. 이들의 성관계는 “발가락으로 달콤한 박자를 타고 입으로는 달콤한 곡조”를 읊조리게 될 때에 완전한 육체의 통합에 도달한다. 탐의 “꼭대기”는 왕과 왕비가 성관계의 무아경이 최고의 절정에 도달하여 남과 여,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상태이다. 예이츠는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 존재의 통합에 도달하는 과정을 춤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춤추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에서 화자는 이제 노인이 되어 성관계의 춤을 출수 없는 것을 한탄한다.

나는 그걸 바로 오늘 생각해 내었소
시계가 한밤중을 가리킬 때
인간이란 지팡이를 짚을 때가 되면
가면을 벗어버리고
쓰러질 때까지 노래하리라.
그녀가 처녀든 마귀할멈이든
‘나는 금잔에는 태양을
은자루에는 달을 담는다.’ (『예이츠 시 전집』 515-16)

I thought it out this very day,
Noon upon the clock,
A man may put pretence away
Who leans upon a stick,
May sing, and sing until he drop,
Whether to maid or hag:
I carry the sun in a golden cup,
The moon in a silver bag. (CP 227)

이 시에서 화자는 “지팡이”를 짚는 노인이 되었을 지라도 “한밤중”이 되면 성

관계를 통한 존재의 통합을 생각한다. 이 시기에 화자는 세상의 체면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치녀든 마귀할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음양의 조화로 존재의 통합을 추구하려고 시도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나는 금잔에는 태양을 은자루에는 달을 담는다”에서 금잔과 은자루는 여성을 상징하고, 태양과 달은 남성을 상징하는 모티프이다. 젊은 시절에 남성은 “치녀”인 금잔에, 노년 시절에 남성은 “마귀할멈”인 은자루에 자신의 남근을 담아 춤을 추면서 음양의 조화를 추구한다. 화자는 늙어가고 있기에, 젊음을 상실한 노인은 과거를 회상하는 노래를 부른다.

요컨대 예이츠는 춤을 상징적 이미지로 사용하여 존재의 통합을 노래하였다. 그는 정신과 육체, 자아와 반자아와 같은 이원론적인 것의 통합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관계를 존재의 통합의 비유로 사용한다. 이 통합에 이르는 과정은 춤으로 이미지화된다.

2. 일연의 『삼국유사』의 춤

한국 전통춤의 시원은 무속이다. 무속사상은 상고시대 원시종합 예술의 하나인 제천행사에서 출발했다. 한국의 춤은 사머니즘의 무속 춤을 근간으로 유교의 제례의식과 불교의 공양의식이 가미되고,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혼합되었다. 민중의 애환은 가면을 착용한 춤사위로 표출되기도 한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음주가무와 풍류를 즐겨서 노래와 춤을 좋아했던 민족이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등 제천행사에서는 풍요와 평강을 비는 춤사위가 펼쳐진다. 하늘에 대한 숭배 의식은 제천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제천행사에서 행해진 춤은 한국 춤의 원형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이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했다. 이런 선조들의 DNA를 받아 지금도 관광 철이 되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놀러 가면서 춤을 춘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춤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이다.

한국 춤에서 무용수는 천지인의 공간에서 삼재의 조화를 이루는 주체이다. 천지인의 공간은 장소를 무대로 춤이 펼쳐진다.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조에는 한국 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처용랑 망해사」조에는 신라시대부터

우리민족이 춤을 춘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설화에 춤은 상징과 은유로 제시되어 신비로움을 준다. 「처용랑 망해사」 조에서 동해용이 맨 먼저 춤을 추고, 둘째로 처용이 춤을 추고, 셋째로 남악신이 춤을 추고, 넷째로 북악신이 춤을 추고, 마지막으로 땅의 신이 춤을 춘다. 일연(一然)은 청년시절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한 『삼국유사』 제1권(卷第一) 기이 제2(紀異 第二) 「처용랑 망해사」(處容郎 望海寺)의 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처용랑 망해사」 조의 용의 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동해의 용이 기뻐서 일곱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타나서 덕을 찬미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중에서 일곱째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에 들어와서 왕의 정치를 보좌해주니, 그 이름을 처용이라고 하였다. 왕은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여 그를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하고 또한 급간(級干)이란 관직도 주었다. (『三國遺事』, 181-82)

東海龍喜 乃率七子 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其一子隨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위의 글에서 왕은 신라의 헌강왕이다. 헌강왕은 개운포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에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때 천문을 담당하는 관리는 왕께 이 현상이 일어난 사실을 고한다. 왕은 동해용이 조화를 부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인물임을 알고 용을 위해서 절을 짓고 개운포라 칭하였다. 이에 용은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왕은 용의 아들인 처용을 궁으로 데리고 가서, 아름다운 여자를 처로 삼게 하고 급간이란 관직도 주었다.

용은 이 작품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용은 외국에서 부족을 이끌고 온 부족장이나, 혹은 동해지역을 다스리는 특정한 세력의 수장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 말이다. 헌강왕 앞에서 용이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춤을 춘 것은 용이 헌강왕에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신하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용의 아들 처용을 왕이 데리고 왕궁이 있는 서울로 데려간 것은 처용이 불모로 데려 간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헌강왕 앞에서 용

이 춤을 춘 것은 헌강왕이 덕으로 국기를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춤은 복종과 덕을 상징하는 매개물이다.

다음으로는 「처용랑 망해사」 조의 처용의 춤을 알아보려고 한다.

처용의 아내는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역신(疫神)이 그녀를 흠모하였다. 그래서 사람으로 변하여 밤중에 처용의 집으로 가서 몰래 그녀와 동침했다. 처용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자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물러갔다. (『三國遺事』, 182)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爲人 夜至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처용의 아내의 아름다움은 당대 신라의 아름다움을 칭할 정도여서 역신이 그녀를 흠모하여 밤이 되면 사람으로 변하여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녀와 동침했다. 처용이 밖에서 돌아와서 보니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물러 나갔다. 신라 헌강왕 5년에 지어진 마지막 향가인 처용가이다. 처용은 미모의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역신하고 동침해서 처용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 “역신”은 천연두를 앓게 하는 여신이다. 처용의 아내가 역신과 동침한 것은 그의 아내가 천연두에 걸린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헌강왕의 시절에 서울에 역병이 돌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처용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집을 떠난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 춤은 집안에서 아내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지만 멀리 서나마 아내와의 사랑이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재현한다. 다른 학자들은 이 장면을 다채롭게 해석하지만, 필자는 처용과 아내가 역신의 등장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처용의 춤은 존재의 통합을 이룰 수 없음을 한탄하는 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처용랑 망해사」 조의 세 번째 춤으로 남산신의 춤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왕이 또 포석정(鮑石亭)에 행차하였는데, 남산의 신이 왕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 좌우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고 왕만이 볼 수 있었다. 어떤 사람(신)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니 왕도 춤을 추면서 그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신의 이름을 상심(祥審)이라고 하였다. (『三國遺事』, 183)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有人現舞於前 王自作舞 以像示之 神之名 或曰祥審

왕이 포석정(鮑石亭)에 행차하였는데, 남산신이 왕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 남산신이 춤을 추니 그 춤을 본 따서 헝강왕이 춤을 추어 호국과 국가의 풍요를 드러낸다. 헝강왕은 남산신이 춤을 추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다른 대신들은 남산신의 춤을 보지 못한다. 남산신의 춤을 목격한 왕은 “어떤 사람(신)”이 춤추는 것을 보고 자신도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남산신의 춤, 헝강왕의 춤, 어떤 사람의 춤은 천지인이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상징한다. 천손의 자식이 왕이며, 이는 하늘(천)을 의미한다. 남산신은 땅을 의미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에 풍요와 즐거움이 가득한 태평성대의 시절임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에 춤은 천지인이라는 각각의 극이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통합된 상태이다.

네 번째로 「처용랑 망해사」 조의 북악신의 춤을 읽어보고자 한다.

왕이 또 금강령(金剛嶺)에 행차했을 때 북악(北岳)의 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이를 옥도령(玉刀鈴)이라고 했다. (『三國遺事』, 183)

又幸於金剛嶺時 北岳神呈舞 名玉刀鈴

신라의 헝강왕이 금강령에 행차했을 때에 북악의 삼신이 나와서 춤을 추었는데 그의 이름을 옥도령이라고 한다. 이번에 춤은 남산신이 춤을 추었을 때에 헝강왕이 같이 춤을 춘 것과 달리 북악의 삼신만 춤을 춘다. 이는 아직 신라의 북쪽의 경계선이 그리 안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왕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호국 상태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헝강왕의 생각과 달리 북악의 삼신들은 이 지역의 호국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왕에게 알

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용랑 망해사」 조의 지신의 춤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 동례전(同禮殿)에서 잔치를 베풀 때 지신(地神)이 나타나 춤을 추었으므로, 지백급간(地伯級干)이라고 하였다. 『어법집(語法集)』에 말하기를 “그 당시 산신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를, 지리다도파도파(智理多都波都波)’라 했는데 도파라 한 것은 대체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미리 사태를 짐작하고 도망갔으므로, 도읍이 장차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三國遺事』, 184)

又同禮殿宴時 地神出舞 名地伯級干 語法集云 于時山神獻舞 唱歌云智理多都波都波等者 蓋言以智理國者 知而多逃 都邑將破云謂也

현강왕이 동례전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했을 때에 지신이 나타나 춤을 춘다. 그리고 『어법집』에는 산신이 춤을 추면서 “지리다도파도파”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신라의 미래를 예언한다. 지리다도파도파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인재들이 숨어버려서 신라가 장차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현강왕의 신라의 부흥을 재건하기 위해 각지를 순찰하면서 노력하였으나, 그 왕이 바라는 국가의 호국과 안녕, 그리고 평안은 점점 사라져가고 지리다도파도파라는 말만 유행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지신에 속하는 산신의 춤은 현강왕에게 이제 신라의 국운이 다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매개물로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현강왕이 신라의 각지를 다니면서 만났던 동해용, 처용, 남산신, 북악신, 지신 등의 춤은 당시 신라의 현 상황을 암시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현강왕의 입장에서 춤은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면서 신라의 풍요를 노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낭비와 타락으로 신라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해용, 남산신, 북악신, 지신 등의 춤은 신라 각지가 향락에 빠져서 타락해 가고 있음을 왕에게 알리면서 미래에 지리다도파도가 성취될 것을 예시하고 있다.

III

춤에는 마력이 있어서 영험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고대인들의 사고의 특징으로 보인다. 예이츠와 일연은 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발전 단계를 시와 설화에 담았다. 특히 두 시인은 춤을 작품의 다양한 이미지로 사용하여 독자에게 다층적 사유의 공간을 열어 놓는다.

예이츠의 춤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통합을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방점을 두고 시로 노래했다. 그는 무용수에게 가면을 착용시켜서 정신과 육체, 자아와 반자아, 나와 타자를 경계 짓는 매개물로 사용하여 육체적 행위에서 정신적 행위로, 현세에서 내세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춤은 무용수가 육체와 정신을 구분할 수 없는 무아경의 상태에 이르러 완전히 정신과 육체가 통합되는 존재의 통합에 도달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는 남녀가 육체적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춤으로 비유하여 음양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존재의 통합을 이룬다고 시에 노래했다.

일연이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에서 노래한 춤은 현재와 미래의 국운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왕의 바람을 드러내는 매개물로 사용되었다. 신라의 헌강왕은 동해용, 남산신, 북악신, 지신 등의 춤을 목격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상념에 빠지며, 자신이 호국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 헛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에 춤은 예이츠의 춤과 달리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예시하는 상징적 매물로 사용된다. 특히 헌강왕이 남산신을 만났을 때에 자신도 춤을 추게 되는데, 이는 이 지역만큼은 자신의 원하는 국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예이츠와 일연은 춤 이미지를 시와 설화의 제재로 사용하여 개인과 국가의 존재의 통합을 노래했다. 춤은 개인과 국가의 영역을 넘나들어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더불어 현세와 내세를 관통시키는 상징물로 사용된다.

Notes

- 1) 신화는 신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 주인공이 신격(神格)일 뿐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 행위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김수중, 10).
- 2) 에이츠의 마스크는 인간의 영원한 고차원적인 영적 자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에이츠는 그것을 이미지, 마스크라고 하였다. 그의 마스크는 신화와 전설을 토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의 마스크란 작가의 현실적 고통을 벗어나 삶으로 돌아와서 삶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다.

Works cited

- Albright, Daniel. *W. B. Yeats: The Poems*. London: Everyman's Library, 1992.
- [Cho, Dongyul and Chung, Okhee, "William Butler Yeats and Indian Thoughts." *The Yeats Journal of Korea* 16 (2001): 7-34.]
- 조동열 · 정옥희. 「에이츠의 인도사상 수용」. 『한국에이츠 저널』 16 (2001): 7-34.
- [Huh, Hyun Sook. "Dance and Woman in William Butler Yeats's Poetry."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57 (2018): 287-300.]
- 허현숙. 「에이츠 시 작품에서의 춤과 여성」. 『무용예술학연구』 57 (2015): 123-38.
- [Ilyeon. *Samgukyusa*. Trans. Kim, Bongdoo. Seoul: Gyomoonasa, 1995.]
- 일연. 『三國遺事』. 김봉두 편역. 서울: 교문사, 1995.
- [Kim, Jooseong. "The Unity of Being in Yeats's Mask Plays." *The Yeats Journal of Korea* 57 (2018): 287-300.]
- 김주성. 「에이츠의 가면극에 나타난 존재의 통합」. 『한국에이츠 저널』 57 (2018): 287-300.
- [Kim, Sujung. *Mythology and the Literary Spirit of Criticism*. Gwangju: Chosun U, 1996.]
- 김수중, 『神話와 文學精神』. 광주: 朝鮮大學校出版國, 1996.
- [Ko, Joonseog. "Unity of Being in Yeats's Imagery of Dance (II)." *The Yeats Journal of Korea* 44 (2014): 227-50.]
- 고준석. 「에이츠의 춤 이미지에 제시된 '존재의 통합'(II)」. 『한국에이츠저널』 44 (2014): 227-50.

- [Lee, Changbae. *W. B. Yeats: The Comprehension of Yeats's Poems*. Seoul: Moonji Publishing, 1997.]
- 이창배. 『예이츠 시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 [Yeats, W. B.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Trans. The Yeats Society of Korea. Seoul: Dongin, 2011.]
- 예이츠. 『예이츠 시 전집』. 한국예이츠학회 역. 서울: 동인, 2011.
- [Yeats W. B.. The Yeats Society of Korea. *W. B. Yeats's Plays*. Seoul: Hanbit Culture, 2016.]
- 예이츠. 『W. B. 예이츠 희곡』 1권. 서울: 한빛문화, 2016.
- [Youn, Jung Eop. “A Study of Meaning of Dance on ‘Cheoyongrang Manghaesa’ in 『Samgukyusa』.”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45 (2017): 215-35.]
- 윤정엽. 「三國遺事 ‘處容郎 望海寺’ 條에 나타나는 춤의 意味 研究. 『어문연구』 45 (2017): 215-35.
- Yeats, W. B.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London: Wordsworth Poetry Library, 2008.
- _____. *Mythologies*. New York: A Touchstone Book, 1998.

Manuscript peer-review process:

receipt acknowledged: Oct. 26, 2020.

peer-reviewed: Nov. 23, 2020.

revision received: Dec. 7, 2020.

publication approved: Dec. 21, 2020.